

울산시, 복지예산 1조9539억 편성… 출산·양육지원 확대

출산·양육 보육지원 예산 4476억
난임 부부 시술비 등 부담금 환급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개선

울산시는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5조 6446억원 가운데 34.61%인 1조 9539억원을 복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정책은 ▲임신·출산~아동 ▲청소년~청·중장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외국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 중 출산·양육 분야 보육지원 예산은 약 4476억원 규모다.

울산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일부 환급을 지속 시행한다. 재가돌봄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아 최대 20만원, 둘째아 최대 3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40만원을 돌려준다.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가 병원 진료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면 1회 평균 7500원을 월 4회까지 지원받는다. 다태아 가정을 위한 안심보험 지원도 신



울산시청.

/울산시

규 추진돼 출생일부터 2년간 응급실 내원비, 질병치료 입원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500만원이 제공된다.

보육환경도 개선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1인당 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가 1인당 월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외국인 주민 자녀는 1인당 월 최대 28만원까지 보육료를 받는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되며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

의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시 최초로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68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내년에는 송정센터와 범서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는 'U-맘스 수면 휴게 쉼터'가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2층에서 운영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 부담과 고립감 해소를 위한 '부모커뮤니티센터'도 설치돼 아동 놀이실과 프로그램실을 통한 자조

모임형 돌봄이 활성화된다.

영유아와 초등학교를 둔 2~5가정의 자조 모임형 돌봄에는 월 30만~45만원을 지원하는 '이웃애(愛) 돌봄사업'이, 마을도서관과 공동주택단지에는 돌봄인력을 파견하는 '늘겉애 돌봄사업'이 운영된다. 지역아동센터 57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32개소를 통한 초등 돌봄도 강화된다.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단가는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통해 아동이 매달 적립하면 정부가 2배를 지원해 18세까지 3200만원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원 연령은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오른다. 첫만남 이용권, 산후 조리비,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비, 구군별 출산 지원금, 가정 양육수당 등도 지속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해 울산은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하동군

진주역 경유 시외버스 노선 운행

하동군이 8일부터 진주역을 거쳐가는 시외버스 신규 노선을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개통은 군민과 관광객의 수도권 교통 접근성 및 KTX 연계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교통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늘어나는 수도권 철도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의 교통 복지 향상과 주요 관광지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노선은 평일·주말 상시 운행되며 수도권 상·하행 KTX 주요 시간대와 연계되도록 배차시간을 조정했다. 진주에서 하동 방향은 08:30, 13:40, 15:50에 3회, 하동에서 진주 방향은 11:40, 15:30, 16:30에 3회 등 1일 총 6회 운행된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도

택시요금 4500원으로 인상

경북도는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된 요금은 10일 자정부터 경북도 전역에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27일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최근 유튜브,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업계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이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전북 농협, 지역기반 리더십 경영 강화

중앙회·은행 주요 본부장 인사
김성훈, 장길환, 이정환 임명

농협이 2026년 1월 1일자로 범농협 집행간부 및 중앙회·농협은행 주요 본부장 인사를 단행한다.

전북지역 조직개편의 핵심 축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농협은행 전북본부장·농협은행 부행장에 모두 전북 출신 간부들이 발탁되며 지역 현장 중심 경영 강화 의지가 읽힌다는 평가다.

김성훈(53) 신임 전북본부장은 김제 출신으로 1996년 농협중앙회 정주지점 서기로 입사한 뒤 지부·본부 핵심 보직을 거친 영업·조직관리 전문가다. 김제 지부, 공제보험기획부, 뉴욕 해외사무소 파견, 전북지역본부 차장 등 본부 경력을 갖췄고, 진안군지부장·공공금융부기관사업단장·고객행복센터장을 역임했다.

장길환(54) 신임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장수 출신으로 1998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본점 여신·경영혁신·데이터·지점 운영 등 실무와 전략 기능을 두루 경험했다. 여신상품팀장, 경영혁

김성훈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장길환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정환
농협은행
부행장

신TF반장, 중화산동지점장, 장수군지부장, 데이터사업부 차세대정보계추진국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아온 '기획·여신 전문가'로 꼽힌다.

이번 인사에서 전북 출신 간부 가운데 최고 요직으로 평가되는 농협은행 부행장에는 이정환(56) 현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이 발탁됐다. 1995년 입사 이후 전주산단지점장, 무주군지부장, 여신심사부 단장, 기업개신부장, CIB 심사부장 등 여신·기업금융 심사 핵심 라인에서 경력을 쌓았다. 2024년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을 거쳐 2025년 중앙회 전북본부장을 맡는 등 최근 2년간 지역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점이 승진 배경으로 거론된다.

/전북=김종일 기자 kji7219@

전남도, '농촌에서 살아가기' 우수사례 선정

남도전원한옥마을·별내리마을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에서 살아가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진도 남도전원한옥마을이 우수상, 장성 별내리마을이 입상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는 매년 귀농귀촌 포털 '그린대로'에 등록된 농촌에서 살아가기 운영 마을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운영 방식, 참가자 활동 내역, 참가자 만족도, 귀농귀촌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99개 마을 중 7개 시·도에서 18개 마을이 참가했으며, 서면 심사를 통과한 10개 중 상위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한 결과 진도 임회면 남도전원한옥마을이 우수상, 장성 별내리마을이 입상으로 선정됐다.

진도 남도전원한옥마을은 2013년 조성돼 주민의 80%가 도시 출신 귀촌



농촌에서 살아가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선정된 남도전원한옥마을 전경. /전남도

자로 구성됐다. 13개 주택이 농어촌민박업소로 등록됐으며, 마을 이해 프로그램, 지역 특색을 살린 국악·영농 체험, 지역 축제·문화예술 행사 참여 등 활동으로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기수별로 군청 관계자와의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 안내와 정착 정보를 제공한 결과, 참여자 중 39%가 실제 전입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여 심사위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토론회' 열어

오는 17일 국회도서관서 진행

해남군은 오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해남·완도)경유' 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해남 출신인 민홍철·

민병덕·민형배 의원과 완도 출신의 허종식·손명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해남군과 완도군이 주관한다.

토론회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를 통한 분위기 확산으로 제5차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마련됐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완도군, 지방소멸대응기금평가 최고등급

전액 국비 120억 사업비 확보

완도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 지방소멸대응기금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며 전액 국비 1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국가 중점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다음 연도 사업비를 확정한다.

2026년도 기금 사업은 당초 2단계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우수(120억), S(88억), A(80억), B(72억) 등 4단계로 세분화하여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1차로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 중 1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로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8개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군은 확보한 120억원의 재원으로 '치유의 섬 완도' 프로젝트, 청년 공공임대 주택 건립 등 지방소멸 대응 전략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반시설사업 국비 252억 확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26년도 기반시설사업 국비로 2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130억원과 비교해 약 2배 규모로, 경제자유구역 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비 확보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지역 교통망 정비 등을 통한 접근성 개선, 부산항 신항 및 경제자유구역 물동량 수송 효율화 등 핵심 과제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이도식 기자